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근원적 조형세계'

최병훈*2† · 이영춘*3

A Study on the Furniture Design of the Early Modernism in the Original Formative-world'

Byung-Hoon Choi*2† · Young-Choon Lee*3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design in the early Modernism that occur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modern arts. The furniture design of the early Modernism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based on the simplicity and honesty of the Art and Crafts Movement and Anti-Historicism in Art Nouveau. During this period, the necessity of mass production became critical due to the radical industrialization and new social demands. In such periodic stream, the furniture design of the early modernism pursued simplicity and geometric beauty based on functionalism. The efforts to discover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furniture were intensified.

It was not limited to furniture design but was also exercised in the huge periodic transformation that progressed in every field of art including architecture. The Modernism art has also been connected to Cubism and spread into an abstract direction. While questioning the potential essence and progressing the study on genuine characteristics, the Modernism art tried to return things into their substantial looks and reorganize them conceptually, rather than reproducing external objects. The furniture that was secondary to a part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accessory transcended its decorative purpose. It pursued the structure to follow its fundamental purpose as furniture. Such tendency corresponded to the direction that Post-Modernism followed. Likewise, both art and design had the revivable and abstract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identical objective in ideology. For this reason, the formative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modernism furniture design have a mutual relationship with modern arts. Particularly, such tendency intensified and progressed through the Bauhaus in Germany.

Based on such facts, this study proved that the early Modernism furniture design in the 20th Century tended to appear in common arts including the art and design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of the huge periodic stream. Furthermore, the ideology that was adopted in art and design, as well as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was examined through the mutual relationship of modern arts and design.

Keywords: Modernism, Abstract Characteristic, Geometric Characteristic

*1. 논문접수: 2008. 07. 10. 본 연구는 2007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21-791

*3.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목조형가구 전공) 박사과정, Ph.D. Course, Dept. of Design & Craf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121-791

† **Corresponding author): Byung-Hoon Choi**(E-mail: bhchoi@hongik.ac.k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미술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왔던 재현의 문제를 벗어나 내적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으며, 디자인은 이전의 장식적 성격을 탈피하고 순수예술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구디자인 또한 단순한 공예품으로 실내장식의 일부로 간주되어왔던 단계를 넘어서 가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가구 디자인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적 변화 아래 등장한 새로운 가치들과 여러 가지 요청들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 각 분야에 걸쳐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큐비즘’(Cubism)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대상에 대한 사실적 재현의 문제를 넘어서 각 장르의 내적 본질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대상을 추상화하고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장식미술은 순수예술에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그 독립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아갔다.

당시의 가구디자인은 미술과 건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단순한 장식적 의미를 넘어서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초기 ‘모더니즘’(Modernism) 가구디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대의 미술과의 이념적 교감을 통해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20세기 초의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한다. 이에 대해 당시의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발생이 모더니즘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미술과 디자인을 포함하는 예술 일반에 나타났던 경향이었음을 밝히고, 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양자가 추구하였던 이념과 조형적 특징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1900년대 초반 초기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이 발전하고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 시절까지 유럽의 현대미술과 가구디자인의 분야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시대적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매킨토시의 가구디자인부터 매킨토시의 가구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성립의 계기와 그 성립과정에서의 시대적, 역사적 의미와 작품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큐비즘으로부터 이어지는 현대미술의 모더니즘 운동과의 연관성을 찾아봄으로써 당시 시대적 상황 안에서 미술과 디자인이 지녔던 공통적 지향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과 현대미술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가구디자인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비엔나 분리파’(Vienna Secession),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 네덜란드의 ‘데 스틸’(De Stijl) 그룹과 독일의 바우하우스 작품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대미술과의 상호연관성 안에서 드러나는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사례를 도판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20세기 초 현대미술이념의 정립

초기 모더니즘디자인이 성립되었던 20세기 전반기를 사회, 문화적으로 ‘현대’(modern)라고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술 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화가 사회의 모습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던 이 시기에 미술에서 또한 이전과는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대상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추상화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미술 전반에 걸친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의 분야들이 서로



Fig. 1. Georges Braque, House at L'estaque(1908)(Left)

Fig. 2. Pablo Picasso, Les Femmes d'Alger(1907)(Right)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립, 발전됨으로서 상호적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미술의 이와 같은 추상화 경향은 대상을 환원적으로 다룸으로써 추상적 이미지를 새롭게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디자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성립 또한 동시대의 회화, 조각 등과 상호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경우에

서는 특히 큐비즘으로부터 시작하여 데 스틸 그룹, 바우하우스, 러시아 구성주의 등의 추상적 경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해왔다. 세잔(Paul Cézanne, 1836-1909)이 모든 대상을 원, 원뿔, 원기둥으로 환원시켜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단일 시점의 원근법을 버리고 여러 측면에서의 상이한 시점들에서 지각된 대상을 하나의 복합적 형태로 구성하려는 시도로부터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등은 큐비즘을 형성하였다.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영향을 받아들여 그것을 작품에 표현한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Les Femmes d'Alger)(Fig. 1.)과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House at L'estaque)(Fig. 2.)은 면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대상을 대담하게 단순화 하고 화면공간 속에서 실체의 구조감을 살리려는 큐비즘의 기하학적 특성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큐비즘의 작업들은 대상을 직선적인 요소로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와 면의 재구성을 통한 복수시점의 적용 등을 통해 새로운 모더니즘 미술 양식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Fig. 3. Kazimir Malevich, Morning in the village after snowstorm(1912)

또한 큐비즘은 시각적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대상을 환원적으로 다룸으로써 부분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도달하려 하였다.(프라이 1992) 이러한 큐비즘의 노력은 이후 여러 미술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점차 추상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상을 환원적으로 다루고 분석하여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은 러시아 구성주의의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1878-1935)는 사각형을 회화의 절대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가장 단순한 형태를 통해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Fig. 3.), 자연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가 진정한 창조이며, 이러한 형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바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회화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제기였다.(김 1999) 러시아 구성주의 시대의 이러한 신조형이념은 기계, 힘, 운동을 예찬하였던 이탈리아 미래파의 ‘동시성’과 ‘역동성’으로 드러나며 동시대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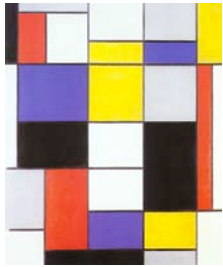


Fig. 4. Piet Modrian, Composition A(1920)

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데스틸 그룹의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3원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하고 직선의 직각적인 교차로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보편적 질서를 찾고자 하였다.(Fig. 4.) 이처럼 모더니즘 미술의 흐름은 내적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고유한 특성에 대한 탐구를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회적 변혁과 더불어 시작된 모더니즘의 이러한 탐구들은 미술 뿐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을 포함하는 모든 예술분야에 걸쳐 상호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3. 초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성립배경

19세기 말 건축과 공예 분야에 있어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과 ‘아르누보’(Art Nouveau)가 20세기 초 모더니즘디자인의 성립 이전에 유럽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미술공예운동과 아르누보는 비슷한 시기에 성립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순수미술에서 응용미술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나타나게 될 초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초 철학이념을 제공하게 된다. 초기 모더니즘 성립될 무렵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산업혁명과 그 여파로 인한 기계문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기계문명이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표현이 불가능하였던 구조나 형태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디자인적 눈높이와 기대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실용성과 더불어 심미성과 조형성을 갖춘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서 제작성과 양산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물자와 가구공급을 위하여 효율적인 양산 시스템과 물자공급이 요구되면서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제작성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성은 큰 반향을 이루며 발전하게 되었다.



Fig. 5. Charles Rennie Mackintosh, Chair for Hill House(1902)

스코틀랜드의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와 그의 작품들은 건축에서 시작하여, 가구 디자인이나 실내장식뿐만 아니라 응용미술과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그의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그의 초기작품 성향은 아르누보 양식을 지니면서 동시에 기하학적인 모더니즘의 양상을 띠었다. 매킨토시는 자연의 외적 형태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한 형태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었다. 매킨토시의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은 자체된 곡선과 함께 직선과 격자무늬를 주로 사용하여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매킨토시의 ‘힐 하우스 체어’(Chair for Hill House)(Fig. 5.)는 이러한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자연의 이미지를 추상화시키고,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하

고 가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실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가구의 의미를 부여하며 모더니즘 가구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효시 역할을 하였던 힐 하우스 체어는 오늘날 초기 모더니즘 가구의 상징성을 갖는 중요한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후 매킨토시의 디자인에서 드러나는 직사각형 형태와 격자무늬는 당시 유행하였던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클래스고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매킨토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분리파’(Vienna Secession)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유럽 각국의 건축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양식화시키고 추상적 형태에 도달하였던 매킨토시의 디자인은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 성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 시작된 미술공예운동은 후기에 들어서 매킨토시를 거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며, 예술과 산업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모더니즘 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산업화를 통한 기계주의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직선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갖고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탐구하였던 초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화·조각·건축 등의 예술 각 분야와의 상호적 연관성 속에서 성립되게 되었다.

4. 현대미술이념과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상호연관성

4-1 비엔나 분리파와 모더니즘가구

과거의 역사주의의 모방·복제·절충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던 아르누보가 유럽에서 성행할 무렵, 오스트리아에서는 1897년 기존의 역사주의로부터 분리를 강조하고 새로운 예술세계의 구현을 목표로 비엔나 분리파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예술운동이 일어났다. 이 분리파의 목적은 미술과 삶의 상호작용을 이룩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주며, 넓고 판에 박힌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 작품을 제작하려는 것이었다.(바스카란 2006) 전적으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이전의 양식과의 분리를 추구하였던 비엔나 분리파의 예술 이념은 회화에 있어서는 구스타프 클림트



Fig. 6. Gustav Klimt, The Kiss(1908)(Left)

Fig. 7. Gustav Klimt, Adele Bloch-Bauer(1907)(Right)

트(Gustav Klimt, 1862-1918)와 건축 및 가구디자인에서 요셉 호프만(Josef Hofmann, 1870-1956)이 중심이 되었다.

비엔나 분리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클림트는 ‘키스’(The Kiss)(Fig. 6.), ‘아델레 브로우 바우어’(Adele Bloch -Bauer)(Fig. 7.) 등을 통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표현적인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였다. 그는 식물을 모티브로 하여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을 흑백의 과감한 대비효과(Contrast)와 함께 반복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초기 모더니즘에 도입되는 형상과 이미지를 자신만의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호프만은 장식적인 요소를 제한하고 직선적인 형태와 사각형의 패턴을 도입하면서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과거의 가구디자인과 차별화를 꾀하였다. 비엔나 분리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호프만의 탈장식의 직선적 형태와 사각형의 패턴으로의 작품 변화추이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

가 된 매킨토시의 작품에서도 그 유사성을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는 1900년대 호프만, 매킨토시,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 1863-1957) 등이 주축이 되어 열렸던 비엔나 분리파 전시에 참가 이후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한 시대적, 작품이념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1905년 제작한 의자 ‘잇팅 머신’(Sitting Machine)(Fig. 8)를 들 수 있다. 이 의자의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된 사각형의 패턴은 글래스고우 아르누보에서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으로 작품의 변화를 꾀하는 매킨토시의 작품들과 큰 유사성이 확인할 수 있다. 호프만의 가구들은 매킨토시와 마찬가지로 조형성을 강조하였고, 기능성과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성립의 시기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 글래스고우 아르누보와 ‘유겐트스틸’(Jugendstil)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두 작가가 과거의 관습과 굴레에서 벗어나 탈자연의 추상적 조형이미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초기 모더니즘의 새로운 시발점이 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Fig. 8. Josef Hofmann, Sitting Machine(1905)

4-2 데 스틸과 모더니즘 가구

1917년 ‘예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여 네덜란드에서 데 스틸 그룹이 만들어졌다. 데 스틸은 미술, 건축, 디자인 각 분야에서 ‘신조형주의’(Neo Plasticism)을 추구하였는데, 회화에 있어서는 피에트 몬드리안과 테오 반 도이스브루그(Theo van Doesburg, 1883-1931)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몬드리안은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빨강·노랑·파랑의 3원색과 무채색으로 제한하고, 직각으로 교차되는 직선들의 비대칭적 구성을 통해서 조화와 보편적 절대성을 추구하였다.

몬드리안 회화(Fig. 9)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강렬하고 정확한 분할과, 비대칭을 통한 긴장감과 균형의 조성은 데 스틸 그룹의 여러 건축 및 디자인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가구디자인에서는 특히 그 자신이 데 스틸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였던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 1888 -1964)의 작품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리트벨트와 몬드리안의 조형적 유사성은 리트벨트의 ‘레드/블루 체어’(Red/Blue Chair)(Fig. 10.)에서 특히 명확하다.

레드/블루 체어의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은 검은 각재와 함께 마치 몬드리안의 회화를 3차원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제작되었다. 20세기 초기에는 색채로 표현된 가구작품은 거의 볼 수 없었으나, 리트벨트는 데 스틸 그룹의 신조형주의 이론을 채용하면서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조형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회화의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리트벨트는 일체의 장식을 배제하고 미와 기능의 순수성을 가장 기능적인 형태로 추구하였다. 이는 데 스틸 그룹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구성 원리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부재들의 새로운 구조법을 창출하였다. 리트벨트의 이 구조법은 가구의 모서리 부분과 면이 맞닿으면서 생성되는 폐쇄공간이 존재하는 기존 가구의 전통적



Fig. 9.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Black, Red, Gray, Yellow, and Blue(1921)(Left)

Fig. 10. Gerrit Rietveld, Red / Blue Chair (1918)(Right)

스타일에서 탈피하여 선과 면을 통과시키고 교차시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확장시키는 신조형 이념을 선보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23년에는 ‘베를린 체어’(Berlin Chair)(Fig. 12.)를 통해 이전의 대칭적 구조를 넘어서 비대칭적 구조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 베를린 의자는 가구에서 이전까지의 대칭적 구조를 거부하고 모든 면을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일한 색상으로 칠해진 비대칭적 수평·수직면의 관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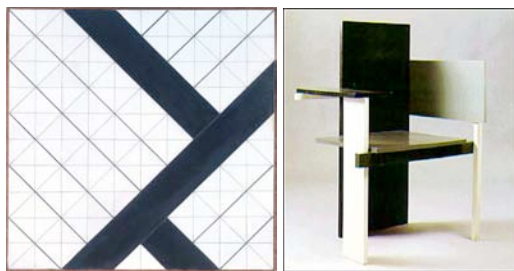


Fig. 11. Theo van Doesburg, Counter-Composition VI(1925)(Left)

Fig. 12. Gerrit Rietveld, Berlin Chair(1923)(Right)

조화를 통해서 신조형주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조형성에 대한 탐구를 실행하였다. 베를린 의자에 사용된 흑백의 모노톤과 직선에 의한 면분할 작업은 반 뒤스부르그 등 초기 모더니즘 화가들의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흑백대비를 강조한 반복성향의 기하학적 패턴 및 면의 해체를 통한 조형성 강조와 많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Fig. 11.) 이러한 일련의 시도와 그 결과물들은 모더니즘 미술을 대변하는 주요한 동시대의 상징이미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4-3 러시아 구성주의와 모더니즘 가구

러시아 구성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의 사회개혁과 더불어 발생하여, 과거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부단한 실험정신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미술에서 완전 비구상을 시도한 최초의 운동 중 하나였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 말레비치, 타틀린(Vladimir



Fig 13. Kazimir Malevich, Reaper on Red Background(1912-13)

Evgrafovich Tatlin, 1885-1953)과 같은 구성주의자들은 직사각형·정사각형·원 등을 기하학적이고 정밀하며 수학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바스카란 2006) 이 기하학적 형태를 위주로 미술 작품을 구성한 것이 근대 세계에서 자연에 대한 기계의 지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22년에 바우하우스 교수로 초빙된 칸딘스키는 회화적인 요소로서 형태의 기본 단위인 점·선·면과 평면적인 색면을 강조하여, 이를 조형 형태의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말레비치는 회화의 절대적인 구성요소를 사각형으로 규정하면서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회화 자체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였다.(Fig. 13.)

러시아 구성주의의 이념은 특히 독일의 모더니즘 운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조형예술학교인 바우하우스로 이어졌다. 바우하우스는 산업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기능주의를 위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바우하우스의 기하학적 조형성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Lajos Breuer, 1902-1981)와 미스 반 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의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브로이어는 바우하우스 제 1회 졸업생으로,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량 생산을 위하여 금속재료 사용을 시작하였다.

1928년 브로이어는 금속으로 전환하게 된 그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금속 가구는 현대적 공간의 부분이다. 그것은 탈양식적이며, 어떤 특정한 양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적과 구성이 필연적으로 그러하다. ... 모든 형태는 언제나 분리될 수 있

고 교환될 수 있는 표준화된 요소들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금속재료의 가구는 오직 현대적 삶의 필수적인 장치가 되도록 의도되었다.”(Garner 1980)

브로이어의 스틸관을 이용한 가구디자인(Fig. 14.)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거센 비난과 혹평을 받기도 했던 시도였다. 하지만 결국 그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대표작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단순하면서도 끊임이 없이 연결이 되는 스틸관이 이루어내는 선의 이미지는 모더니스트들의 작품세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상징체계로 거듭나게 되었다.

미스 반데 로에는 ‘간소한 것이 더 나은 것’(less is more)이라고 본질적인 구성에 집중해 디자인의 간소화를 주장하였다.(폐계작 2006)

바르셀로나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바르셀로나 체어’(Barcelona Chair)(Fig. 15.)는 신고전주의와 현대의 훌륭한 세부 혼합을 묘사하였으며, 현대식 의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아름다운 의자로 갈채를 받아온 이 작품은 연결부가 없는 쪽 이어진 X자의 강철 뼈대를 갖고 있다. 이는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가구디자인 언어로 자리 잡았으며, 산업생산을 위한 기하학적 형태와 더불어 재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재료의 고유한 성질을 잘 표현하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더한 바우하우스 가구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바우하우스 교육의 핵심이념인 총체미술(Gesamtkunstwerk)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모든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 불가피하게 요청된 과학, 기술과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를 탄생시켰다. 합리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는 바우하우스의 실천적인 측면은 ‘기능적인 것이 아름답다.’라는 기능주의 미학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기하학적 추상은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표방하는 조형언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송 2002) 이처럼 바우하우스는 예술의 통합을 통해 모더니즘의 개혁적 이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으며, 기능주의의 장려와 공업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 모더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Fig. 14. Marcel Breuer, 'Cesca' Cantilever Chair(1928-1929)(Left)

Fig. 15. Mies van der Rohe, Barcelona Chair(1929)(Right)

5.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5-1 탈자연의 추상적(Abstract) 조형성

앞서 살펴본 현대미술에서의 추상화 경향은, 계속하여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던 가구 디자인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장식성이 강한 아르누보의 가구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나, 탈자연의 추상적 조형이미지를 가구에 접목시킨 매킨토시는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작가 중 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묘하면서도 유한 곡선의 등받이가 특징인 ‘힐 하우스 암체어’(Armchair for Hill House)(Fig. 16.)는 아르누보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미와 정교한 장식적 요소가 초기 모더니즘의 직선적 요소와 조합이 되어있다. 이 의자는 매킨토시의 아르누보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킨토시가 아르누보적 양식을 지닌 초기 모더니즘의 가구디자인의 효시가 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면서 초기 모더니즘의 가구



Fig. 16. Charles Rennie Mackintosh, Armchair for Hill House(1904)

디자인 역시 다른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장식위주의 역사적 관습에서 탈피하여,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구가 갖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한 디자인으로 변모하였다.

매킨토시로부터 시작된 탈자연의 추상적 조형이미지를 지닌 가구는 당대 가구디자인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 데스틸 그룹 등의 동시대 모더니즘 작가들의 추상적, 기하학적 조형주의 미술 작업들과의 연관성을 공유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조형이념을 대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매킨토시를 비롯한 초기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은 직선적이고 추상적이 형태들이 가미가 되며 아르누보의 전형적 모티브와 역사주의, 그리고 곡선 이미지에 벗어나 가구의 내재적이고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장식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형태를 추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2 구조주의에 의한 기하학적(Geometric) 조형성

매킨토시를 효시로 하여 이전 시대까지 치중하였던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가구 구조와 직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만의 조형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시작한 초기 모더니즘의 가구디자인은 구조의 순수한 형태를 디자인으로 표현해야한다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과 접목이 되면서 실용성과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반영하게 된다.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이러한 실용성과 단순함의 추구는 사회적으로 산업혁명과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해, 귀족들을 위한 화려한 장식의 가구들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변혁과 더불어 발생한 것이었다. 관습적인 구조와 장식을 거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창조적인 신선한 접근 방식은 결국 초기 모더니즘의 구조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하학적 조형성의 중심에는 네델란드의 데스틸의 가구디자이너가 있었다. 데스틸의 가구디자이너는 ‘신조형주의’(Neo-Plasticism) 정신에 입각하여 순수평면의 추상형태를 3차원의 공간구조로 변환시키고 직각의 면 분할과 무한한 확장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새롭고 정확한 구조와 평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때문에 구조원리에 입각한 기하학적 조형성이 자연스럽게 강조 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주의는 당시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새로운 시대요구적 가치관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리트 리트벨트의 ‘지그재그 체어’(Zig Zag Chair)(Fig. 17.)는 등판과 좌판 그리고 다리부분이 도브 테일(Dovetail) 구조의 판재결합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각 결합 부위는 예리한 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블록과 볼트를 이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구조주의를 통한 기하학적 조형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인 연구와 함께 면 분할(Composition)과 공간(Space)에 관한 이론을 디자인에 대입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조형의식을 작품에 부여한 점 또한 당시 데스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Fig. 17. Gerrit Rietveld, Zig Zag Chair(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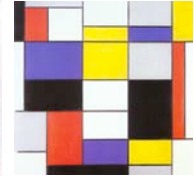






5-3 신소재에 의한 실험적(Experimental) 조형성

산업혁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국가 간 교류는 당대의 작가들로 하여금 관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작업들을 요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과거의 역사주의를 반대하고 전통적 재현미술을 거부하며 새로운 요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미술에서의 새로운 표현 양식과 미술사조의 태동을 이끌었고, 건축 및 가구디자인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구조와 장식에 대한 연구, 재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통한 실험정신의 표출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스틸관이라는 신소재를 가구에 적용하였던 마트 스타트(Mart Stam, 1899-1986), 마르셀 브로이어 등 바우하우스 출신 작가들의 작품은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서 실험정신과 신소재의 사용을 통한 독창적 조형성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ig. 18. Mart Stam, Cantilever Chair(1926)

Table 1. Comparison chart of Contemporary Art and Modernism Furniture Design

	현대 미술	초기 모더니즘 가구
비엔나 분리파	 <p>Gustav Klimt The Kiss(1908)</p>  <p>Egon Schiele Sleeping Figure with Blanket(1910)</p>	 <p>Josef Hoffmann S Machine(1905)</p>  <p>Koloman Moser Purkersdorf Chair(1903)</p>
데스틸	 <p>Theo van Doesburg Composition(The Cow)(1916-1917)</p>  <p>Piet Mondrian Composition A(1923)</p>	 <p>Gerrit Rietveld Red Blue Chair(1918)</p>  <p>Gerrit Rietveld Schroeder Table(1923)</p>
구성주의 • 바우하우스	 <p>Kazimir Malevich Reaper(1912-1913)</p>  <p>Wassily Kandinsky Upwards(1929)</p>	 <p>Marcel Breuer Wassily Chair(1925)</p>  <p>Mies van der Rohe MR Chair(1927)</p>

이 캔틸레버(Cantilever,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보) 구조의 가구(Fig. 18.)는 이후 모더니즘 가구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당대의 미술과 건축 그리고 가구디자인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분야와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험적인 양식과 신소재의 사용에 의한 디자인적 독창성을 통한 독창적인 조형의식의 표현은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Early Modern Furniture Design

		탈자연의 추상적 조형성	구조주의에 의한 기하학적 조형성	신소재에 의한 실험적 조형성
아르누보	Charles R. Mackintosh			
분리파	Josef Hoffmann			
	Koloman Moser			
데스틸	Gerrit Rietveld			
바우하우스	Marcel Breuer			
	Mies van der Rohe			

6. 결론

20세기 초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대량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새로운 사회적 요청들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기하학적인 미의 추구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가 심화되었다. 초기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재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대상물의 고

유한 특성에 대한 탐구를 진척시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현대미술은 외부 대상을 재현하기보다는 각각의 본질적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추상적 이미지를 현실화시키면서 이를 통해 내적감성의 보편적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실험정신을 표출하였다.

초기 모더니즘시대의 현대 미술과 마찬가지로 가구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모습은 매킨토시를 시작으로 하여 비엔나 분리파, 네덜란드 데스틸 그룹과 러시아 구성주의, 독일 바우하우스 등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매킨토시는 일본의 격자문양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분리파 출신의 호프만, 모저(Koloman Moser, 1868-1918) 등은 흑백의 기하학적 이미지를 가구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동시대의 미술에서 유행하였던 기하학적 조형성을 재해석하였다. 리트벨트는 3원색과 조형의 기본에 되는 사각형, 삼각형, 원의 구성을 통한 가구디자인으로 조화와 보편적 절대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바우하우스 작가들은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가구디자인을 선보였다. 건축과 실내장식에 종속되어 있던 가구가 장식적 목적을 벗어나서 가구 본연의 목적에 따르는 구조에 대한 탐구는 위에서 언급한 모더니즘 미술이 나아갔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이념적 목표에 따라 미술과 디자인 모두는 환원적이며 추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기하학적, 추상적 조형성은 현대미술과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특히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통해 더욱 심화되며 전개되어 갔다. 또한 실험정신에 입각한 독창적 조형성 또한 동시대의 대표적인 조형이념의 근간을 이루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그 결과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성과 유용성을 추구하였던 초기 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은 재료와 구조에 대한 탐구를 통해 ‘탈자연의 추상적 조형성’과 ‘구조주의에 의한 기하학적 조형성’, 그리고 ‘신소재에 의한 실험적 조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6. 참고문헌

Philippe Garner. 1980. Twentieth-Century Furniture. Phaidon Press: 98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120-122

락시미 바스카란. 정무환 역. 2006. 한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시공아트: 24, 38-39, 52, 126

송남실. 2002.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 회화정신,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vol. 4. 경남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157

알렉산더 폰 페게작. 문찬 역. 2006. 의자와 함께한 20세기 디자인 - 100 Masterpieces from the Vitra Design Museum Collection. 로렌스 제프리스: 102

에드워드 F. 프라이. 김인환 역. 1992. 큐비즘. 미진사: 38-39